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전기의 私奴婢

조혁연*

-
- I. 머리말
 - II. 분역화 발생 영역
 - III. 收貢 전담 노비
 - IV. 영농 전담 노비
 - V. 기타 분역화 현상
 - VI. 맺음말
-

I. 머리말

『병자일기』¹⁾는 남이공²⁾(南以恭, 1565~1640)의 정경부인 남평³⁾ 조

* 충북대학교 강사

- 1) 겉표지의 제목은 ‘송정병자일기(崇禎丙子日記)’로 되어 있으나 대개 ‘병자일기’로 통용된다.
- 2)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는 시북(市北). 남위(南瑋)의 아들이다. 병자호란 이듬해 소현세자가 볼모로 심양(瀋陽)에 잡혀갈 때 우빈객으로 세자를 극진히 호위하였으며, 그뒤 돌아와 춘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성강리에 영당과 묘소가 있다.
- 3) 전남 나주시 남평, 산포, 금천, 봉황면 등 동부지역 일대의 옛지명이다. 백제 때는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 지역이었다가 고려태조 23년(940)에 남

씨(南平 曹氏, 1574~1645)가 쓴 작자와 창작연대가 분명한 17세기 전기의 여성 實記문학이다. 이에 따라 『병자일기』에 대해서는 국문학계와 민속학계의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 국문학계⁴⁾는 서지, 문체, 어휘, 음운 등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생산하고 있고, 민속학계⁵⁾에서는 의식주, 관혼상제, 세시풍습 차원에서 『병자일기』에 접근하고 있다.

농업사 분야에는 『병자일기』를 주제로 쓴 박근필의 박사학위논문⁶⁾ 등 두 편이 부각돼 있다. 그러나 일반 史學에는 아직 한 편의 논문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평조씨의 체류지였던 ‘利安⁷⁾이 충북에 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역사 복원 차원의 연구도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병자일기』는 피란일기이지만, 그 내용 안에는 다양한 노비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노비 중에는 이름을 지닌 ‘有名노비⁸⁾가 많아, 그들의 동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자일기』는 대체로 ‘난중피란기’(1636년 12월 15일~1637년 2월 17일), ‘서산·당진체류기’(1637년 12월 18일~1638년 1월 25일), ‘충주 체류기’(1638년 1월 26일⁹⁾~5월 28일), ‘서울 귀환기’(1638년 5월 29일 이

평군(南平郡)으로 바뀌었다. 남평 조씨는 창녕 조씨(昌寧曹氏)에서 분적한 성씨로 알려져 있다.

- 4) 문희순, 2010, 「남평조씨 3년 9개월의 가정과 인간경영」, 한국언어문화학회 제 75집; 박경신, 1990, 「『병자일기』 연구」,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정우봉, 2012, 「남평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권; 변순희, 1999,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함정옥, 2007, 『남평 조씨 <병자일기>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 5) 박경신, 1994, 「『병자일기』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의 민속」, 울산어문논집 제 9집.
- 6) 박근필, 2004, 「『병자일기』 시기 남이옹가의 경제생활」, 농업사연구 제3권 제 1호; 박근필 2002, 「『병자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기후와 농업」,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지금의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에 해당한다.
- 8) 이름을 지닌 노비가 솔거노비인지 외거노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분하지는 않았다.

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¹⁰⁾

4시기의 구분 중 ‘난중피란기’와 ‘서산·당진체류기’는 짧은 체류와 이동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노비들의 동태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 ‘서울 귀환기’의 남평조씨 관심은 남편 남이웅의 接賓客을 관찰하는데 쏠리게 되면서, 이 시기 역시 노비들의 동태가 명료하지 않다. 남평조씨는 서울 귀환 후의 노비들 동태를 ‘사람 OO명이 김매러 갔다’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남평조씨家 노비들의 동태는 ‘충주 체류기’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평조씨는 충주 이안(利安)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首奴(혹은 幹奴)인 ‘경수’부터 이괄(李适, 1587~1624)의 난 때 振武公 신 3등¹¹⁾에 책록 되면서 하사받은 婢 ‘莫介’의 사역 모습까지 세세히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병자일기』 속의 有名노비들의 동태를 추적하면 그들의 主家에 대한 使役이 分역화(分役化)¹²⁾ 돼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分역화는 사노비 여러 영역 중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당시 사노비 分역화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었고, 그 배경은 무엇일까. 본 글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노비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병자일기』 원문은 중세한글 해서체로 기록돼 있고, 또 난필에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아 일반인이 읽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은 원문과 함께 『역주 병자일기』¹³⁾를 기초로 구성했고, 원문은 상황에 따라 註치리를 하였다.

9) 실제 충주 남면에 도착한 것은 이보다 나흘 늦은 1638년 1월 그믐이다.
 10) 박경신, 1990, 『『병자일기』 연구』,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167쪽.
 11) 이때 莫介(李尊비)를 포함해 春伊(鄭允緒비), 介叱(질)知(=개지, 李景儉노), 乙介(李景儉노), 春伊(李尊비), 日隱介(李尊비), 日今(李尊비), 香春伊(이방좌비) 등 총 8명을 받았다.
 12) ‘역할 분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어를 하였다.
 13) 역자 전형대·박경신, 1991, 예전사.



<그림 1> 『병자일기』 표지와 내용

II. 분역화 발생 영역

조선시대 봉건적 신분제 하에서의 私奴婢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그 존재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돼 왔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나 언어적 기준이 없어, 혼란상이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다.

김형석은 노비가 上典의 戶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바깥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率居노비와 外居노비로 분류하였다. 김건태는 거주가 아닌, 호적의 개념으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를 구분하였다. 그는 호적상 주인 戶에 등재된 경우는 솔거노비, 반대로 호적상 주인 戶 바깥에 등재된 경우는 외거노비로 분류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솔거와 외거 개념을 내세웠으나 접근 방법은 달라, 노비주에게 使役되는 노비는 솔거노비, 납공하는 노비는 외거노비로 개념화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중 솔거노비에 대해서 ‘家內使

喚노비와 主家 인근의 ‘率下노비’로 다시 세분하기도 하였다.

이영훈은 솔거와 외거가 아닌, ‘在地노비’와 ‘外方노비’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主家와 동일한 郡에 거주하는 노비 중 일부를 在地노비로, 그리고 다른 郡과 主家에 동거하지 않는 솔거노비를 外方노비로 규정하였다.

김용만은 이분법이 아닌 4분법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는 종전의 솔거노비에 대해서는 ‘전형적 仰役노비’, 遠處에 거주하며 主家の 전답을 관리하는 노비는 ‘잠정적 仰役노비’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밖에 자기 땅을 소유하고 순수 납공만 하는 노비는 ‘전형적 納貢노비’, 主家 인근에 거주하면서 납공만 하는 노비는 ‘잠정적 納貢노비’라고 부르자고 하였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선시대 사노비의 존재 형태에 대한 여러 이론

| 주장자 | 구분 | 내용 |
|------------------------|----------|--------------------------|
| 김형석 ¹⁴⁾ | 솔거노비 | 노비주의 戶에 거주 |
| | 외거노비 | 노비주 戶의 바깥에 거주 |
| 김건태 ¹⁵⁾ | 솔거노비 | 호적상 주인戶에 등재된 노비 |
| | 외거노비 | 호적상 주인戶 바깥에 존재하는 노비 |
| 국사편찬위원회 ¹⁶⁾ | 솔거노비 | 노비주에게 사역하는 노비 |
| | 외거노비 | 노비주에게 납공하는 노비 |
| 이영훈 ¹⁷⁾ | 재지노비 | 主家와 동일한 郡에 거주하는 노비 중 일부 |
| | 외방노비 | 다른 郡 노비+主家에 동거 않는 솔거노비 |
| 김용만 ¹⁸⁾ | 전형적 양역노비 | 솔거노비 |
| | 잠정적 양역노비 | 遠處에 거주하며 主家の 전답을 관리하는 노비 |
| | 전형적 납공노비 | 자기땅을 소유하고 순수 납공만 하는 노비 |
| | 잠정적 납공노비 | 主家 인근에 있으면서 납공만 하는 노비 |

14) 金亨錫, 1960, 『朝鮮封建時代農民의 階級構成』, 학습원동양문화연구소, 83쪽(재인용).

15) 김건태, 2008, 「조선후기 사노비 파악방식」, 『역사학보』 제 181집, 126쪽.

16) 국사편찬위원회, 2013, 『한국사 31 조선중기의 사회와 문화』, 탐구당.

<표 1> 분류의 혼돈상은 엄밀히 말하면 ‘主家에 동거하지 않는 同·近村의 노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다음의 문헌사료가 논쟁 출발의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황희가 장인 양진(楊震)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 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흠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¹⁹⁾

‘집안에서 부리는 자’는 솔거노비의 전형으로 볼 수 있으나, ‘농막에서 흠어져 사는 자’는 구분이 쉽지 않다. ‘主家에 사역을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솔거’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집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거’로도 볼 수 있다.

김형석의 분류 방식은 최초의 관련 이론이자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이론이다. 그러나 그의 구분방식대로 하면 ‘主家에 同居하지 않는 같은 마을(同村) 노비와 ‘遠處에 거주하는 납공노비’를 구분할 수 없다. 같은 ‘외거노’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김건태의 호적상 등재에 따른 분류 방식은 논리상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증식에 따른 행동으로 실제 상황과 호적이 다른 사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므로 이 분류 방식으로는 솔거와 외거노비의 실제적인 구분이 쉽지 않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개념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 방식이나 언어 표현적으로 명쾌하지가 않으면서 자칫 곡해를 낳을 수 있다. ‘솔거’의 언어적인 개념은 ‘主家에서 上典과 함께 同居한다’는 의미가

165-166쪽.

17) 이영훈, 1987,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 9(재인용).

18) 김용만, 1990, 조선중기 사노비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쪽.

19) 『세종실록』 10년 6월 25일자: 喜傳得妻父楊震奴婢只三口, 傳得於父者亦不多, 而使喚家內及散居農舍者多矣.

내포돼 있다.

그러나 同·近村 노비는 사역하는 것은 맞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外居노비에 해당한다. 이영훈의 분류 방식은 협소 공간인 ‘在地노비’와 광역 공간인 ‘外方노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역시 ‘主家に 살지 않는 同·近村 노비’는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를 낳고 있다. ‘主家に 동거 않는 솔거노비’가 여기에 해당하나 이영훈의 분류 방식대로라면 在地노비가 아닌 外方노비에 속하게 된다.

김용만은 4분류법을 시도하는 등 조선시대 사노비를 가장 세세하게 분류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主家に 살지 않는 同·近村 노비’는 소속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잠정적 양역노비’나 ‘잠정적 납공노비’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主家に 살지 않는 同·近村 노비’의 본질적인 역할은 納貢이 아닌 主家에서의 使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조선시대 사노비 존재 형태에 대한 분류 방식은 아직 혼란상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글은 가장 일반화된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국사』(국정교과서, 7차 교육과정)의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²⁰⁾라는 분류 방식을 따르고자 하였다. 납공노비도 외거노의 일파로 볼 수 있으나 주가를 위한 육체적인 使役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거노비와 구분되고 있다.

『병자일기』에는 이름을 지닌 有名노비 76명을 포함해 적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비들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 노비주인 남평조씨는 이들을 분명히 계층적으로 호칭하였다.

그는 上典의 집에 동거하면서 경작과 가내잡사에 사역되는 솔거노비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의 호칭하지 않고 ‘중’(중들 포함), ‘집중’, ‘계집중’(안중 포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표 2>는 1638년(무인)의 『병자일기』 충주 체류기간²¹⁾의 사례를

20)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14쪽.

21) 1638년(무인) 1월 30일~5월 29일 기간을 말한다.

정리한 것이다.

<표 2> 남평조씨가 충주 체류기간에 솔거노비를 호칭한 사례

| 호 칭 | 날 짜 |
|------|---|
| 종 | 3월 3일, 5일, 7일, 8일, 4월 1일, 2일, 5월 14일, 18일, 19일, 23일 (총 10건) |
| 집의 종 | 3월 9일, 12일,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 30일, 4월 3일, 9일, 10일, 11일, 17일, 18일, 22*23일 ²²⁾ , 24일, 25일, 27일, 5월 6일, 8일, 9일, 10일, 11일, 13일, 14일, 20일, 21일, 22일, 24일, 25일, 26일 (총 31건) |
| 계집종 | 4월 11일, 14일, 5월 23일(총 3건) |

반면 남평조씨는 나머지 종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호칭하거나 집밖에 산다는 뜻으로 ‘집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공노비에 대해서는 이름을 생략한 채 ‘어디서 공을 받아왔다’ 정도로 간략히 기록하였다. 따라서 ‘집종’과 남공노비를 대상으로 삼아서는 사노비의 분화와 내용을 살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앞서 서술한대로 이름을 지닌 有名노비만이 가능하다.

문제는 有名노비가 솔거, 외거노비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분별해 내는데 있다. 남평조씨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을 계층적으로 부른 데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는 앞서 서술한대로 솔거노비 중 家內에서 잡일 使役을 하는 노비에 대해서는 ‘종’, ‘집종’, ‘계집종’ 등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반면 非가내사역, 즉 집안 잡일보다 중요도가 높은 사역을 하는 노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이름을 호칭하는데 이들이 바로 有名노비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主家에서 노비주와 同居했는지, 아니면 집밖에 外居했는지는 문헌상으로는 최종 확인이 어렵다. 다만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문헌사료가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 솔거노비들의 거주 공간은 10칸으로 제한됐다.

22) 이날은 일기를 몰아서 기록하였다.

들으니 박원종(朴元宗)의 아내 윤씨(尹氏)의 상언(上言)속에 ‘행랑(行廊)은 노복(奴僕)들이 사는 곳이요, 천인(賤人)의 집은 법에 10간(間)으로 제한하였다. 청컨대 철거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²³⁾

조선시대 총 10간의 행랑에 솔거노비 20명 이상이 기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主家의 나머지 솔거노비들의 대부분은 同村이나 近村으로 移居시킨 후 사역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有名노비’로, 主家의 같은 마을이나 近村에 살면서 출퇴근을 했을 것이다. 이 경우 ‘有名노비’는 출퇴근을 했던 노비라는 점에서 ‘집난중’과 여러모로 그 역할이 겹치고 있다. 따라서 ‘有名노비=집난중’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병자일기』 다음의 내용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O싱일이라집난중들쭈찬진위서혀와잡습다.²⁴⁾

이날 남평조씨는 ‘O(이름 확인 불명)의 생일이라 집난중들에게 酒饌을 주었고, 진위에서 떡과 술을 하여 와서 먹었다’고 한다. 남평조씨의 기록 습관으로 볼 때 ‘동거하는 솔거노비’는 ‘중’, ‘집의 중’, ‘계집중’ 중 하나로 기록됐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동거하지 않고 인근에 살고 있는 노비’라는 뜻에서 의식적으로 ‘집난중’이라고 적었다. 이 경우 遠處에 거주하는 남공노비가 ‘주찬을 얻어 먹기 위해’ 충주 이안의 남평조씨 집을 찾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남평조씨家 사노비들의 분역화는 ‘有名노비’, 즉 솔거적 성격을 지닌 同·近村 노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병자일기』 속의 사노비 분역화는 솔거와 외거노비의 교집합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23) 『중종실록』 10년 윤4월 21일자: 特進官柳子光對曰: “凡公私賤隸一年身貢, 不過二匹, 而今正兵二朔之價, 多至十五匹”

24) 『병자일기』 1638년 9월 24일.

Ⅲ. 收貢 전담 노비

1. 인물별 분류

『병자일기』에는 자기 이름을 가진 有名노비가 총 76명 등장한다. 이 중 공물을 거두는 收貢 사역에 동원된 노비는 총 12명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12명의 收貢 실적을 살펴보면 ‘축이’ 8회, ‘충이’ 6회, ‘산회’·‘애남이’·‘일봉이’ 각 2회, 나머지 ‘의봉이’·‘덕경이’·‘충일이’·‘덕남이’·‘오장’·‘수필이’ 각 1회 등으로 ‘축이’가 收貢 사역에 가장 많이 동원됐다.

收貢을 하려면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지리에도 밝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물을 거둔다는 점에서 계산 능력도 어느 정도 지녀야 한다. 때문에 남평조씨는 수십명의 有名노비 중 비교적 젊고 총명한 노비를 선발, 收貢을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축이’와 ‘충이’가 이에 해당됐다고 볼 수 있다. <표 3>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남평조씨가 收貢 전담 노비들의 동태

| | 노비 이름 | 收貢 시기 ²⁵⁾ -收貢 지역 | 收貢 횟수 |
|---|-------|--|-------|
| 1 | 축이 | 9월-청풍, 1월-전라도, 3월-청풍, 4월-강릉, 11월-전라도, 2월-전라도, 윤1월-연안, 2월-전라도 | 8회 |
| 2 | 충이 | 7월-서울, 11월-개령, 12월-회덕, 2월-경상도, 4월-강릉, 2월-적성 | 6회 |
| 3 | 산회 | 11월-전라도, 6월-당진 | 2회 |
| 4 | 애남이 | 5월-광주, 윤1월-선산 | 2회 |
| 5 | 일봉이 | 3월-청풍, 2월-적성 | 2회 |
| 6 | 의봉이 | 5월-경상도 | 1회 |
| 7 | 덕경이 | 7월-개령 | 1회 |
| 8 | 충일이 | 4월-서울 | 1회 |
| 9 | 덕남이 | 4월-서울 | 1회 |

| | | | |
|----|-----|----------|----|
| 10 | 오장 | 2월-전라도 | 1회 |
| 11 | 창원이 | 11월-부안 | 1회 |
| 12 | 수필이 | 2월-장소 불명 | 1회 |

『병자일기』에는 노비주가 노비에게 어떤 행동을 위임하는 징표인 ‘牌旨’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평조씨家の 收貢전담 노비들도 牌旨를 휴대하고 전국 곳곳을 돌며 收貢 사역에 임했을 것이다.

남평조씨가 收貢 사역에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收貢 사역은 1년 중 음력 2월에 가장 많이 이뤄졌다. 전체 노출빈도 27건 중 33.3%에 해당하는 9건²⁶⁾이 이 시기에 收貢됐다.

이처럼 남평조씨는 가을걷이가 끝난 시기이면서 추위가 어느 정도 물러가기 시작하는 음력 2월을 收貢의 적기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4월과 11월이 각각 4건으로, 두 번째로 수공 빈도가 높았다. 4월은 봄작물, 11월은 가을걷이가 종료된 점이 收貢 2차 적기로 판단됐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8~10월 3개월 사이에는 收貢 실적이 단 1번밖에 없었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농작물이 결실을 맺기 전이나 막 가을걷이가 끝난 시점으로 수공할 대상을 잡아가기가 쉽지 않은 때였다. 이밖에 主家에서 가까운 곳으로 며칠 밖에 걸리지 않는 곳의 收貢은 마차 등을 이용해 실어왔다.

툇이일봉이적성콩실라가다.²⁷⁾

툇이가적성가콩시러오다.²⁸⁾

25) 收貢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환이 아닌, 출발할 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다.

26) 9회의 데이터에는 ‘윤1월’ 것도 포함돼 있다. ‘윤1월’은 양력으로 치면 2월에 속한다.

27) 『병자일기』 1639년 2월 4일.

28) 『병자일기』 1639년 2월 7일.

‘충이’와 ‘일봉이가’ 적성²⁹⁾으로 콩을 실러 출발한 날은 1639년 2월 4일 이었고, 돌아온 날은 7일로 3일이 소요됐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마차가 등장하지 않으나 ‘시리오다’(실어오다)라는 표현으로 봐 마차로 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라도 등 主家에서 먼 지역으로 수공을 갈 때는 짧게는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축이와 산희가 전라도 공을 받으러 간 것은 1638년 11월 26일³⁰⁾이었고,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이듬해 2월 28일³¹⁾이었다. 전라도보다 가까운 강릉은 1개월 가량 소요됐다.

특이특이강능³²⁾집바드라가다.³³⁾

툽이툽이강릉가더니오다우케념섬의머육빅얼닐곱동대구삼십륙.³⁴⁾

‘축이’와 ‘충이’가 출발한 곳은 이안지역으로, 이때는 충주에 체류할 때였다. 두 有名노비는 1638년 4월 14일 짐을 받으러 출발해 3개월 후인 5월 13일 벼 네 섬과 미역 백열일곱 동, 대구 서른 마리를 가지고 왔다.

이밖에 收貢과는 관련이 없지만 당시 노비들은 충주-서울 거리를 3일~3.5일 정도에 주파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이’가 반찬을 사기위해 충주 이안지역에서 서울로 출발한 것은 1638년 3월 22일³⁵⁾이었다. 그리고 돌아온 날은 3월 28일³⁶⁾로 왕복 7일이 소요됐다. 편도로는 3~3.5일 소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비들의 收貢이 매번 목적을

29) 지금의 경기도 연천 지역을 말한다.

30) 원문: 특이산희전라도슈공가다.

31) 원문: 특이산희전라도공바다오다.

32) 지금의 ‘강릉’을 의미한다. 5월 13일자에는 ‘강릉’으로 적었다.

33) 『병자일기』 1638년 4월 14일.

34) 『병자일기』 1638년 5월 13일.

35) 원문 해석: 하도 반찬 없는 밥에 견디지 못하여 조기나 받아 오려고 충이를 서울로 보냈다.

36) 원문 해석: 충이가 서울 갔다가 왔는데 소동이 덜하고 ...

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이유로 收貢을 하지 못해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도적을 만나 收貢한 물품을 모두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다.

어울미이남이드러오니평안도공도물받고종은죽베니업더라한다.³⁷⁾

인남이선산가무명두동반시러오다가툽쥬디나화적만나몸만드러오니.³⁸⁾

어두울 무렵에 돌아온 애남이는 ‘평안도의 공물은 받지 못했고 종들은 죽은 자들이 없더라고 한다’라고 남평조씨에게 보고하였다. 또 애남이는 선산에서 수공으로 받은 무명을 충주 지나서 모두 빼앗기고 몸만 들어왔다. 병자일기 여러 명의 수공전담 노비 중 유독 애남이에 게서만 收貢실패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배달사고, 즉 애남이가 收貢을 착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납공노비들은 약정된 농작물을 貢物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작물로 ‘餘貢’을 하기도 하였다. 청풍의 납공노비인 ‘섬이’는 원래 ‘메조’를 납공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메조’³⁹⁾가 흉작이었던지 ‘팥’으로 대신 납공하였다.

서미며조미슈의뫏두말가져오다.⁴⁰⁾

2. 지역별 분류

<표 4>에서 보듯 收貢 노비들이 특정지역을 전담한 빈도수는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1명의 收貢노비 중 ‘축이’는 전라도 지역

37) 『병자일기』 1638년 12월 15일.

38) 『병자일기』 1640년 윤1월 그믐날.

39) 조(粟)의 일종을 말한다.

40) 『병자일기』 1638년 3월 23일.

을 분명히 전담하였다. <표 6>에는 ‘산회’와 ‘오장’도 전라도 지역을 收貢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축이’와 동행한 것이지 단독 收貢을 한 것은 아니었다. ‘축이’는 4번의 전라도 지역의 收貢 중 1638년 11월 26일은 ‘산회’와, 그리고 1640년 2월 8일에는 ‘오장’과 동행하였다.

나좌특이산회전라도공바다오다.⁴¹⁾

특이오장이전라도슈공갓더니오고슈필일오조희시러오다.⁴²⁾

이처럼 ‘축이’가 전라도 지역 收貢을 전담했다는 것은 가장 젊고 건강하면서 지리에 밝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앞서 서술했듯이 ‘축이’의 전라도 지역 수공에는 3개월이 소요됐다. 이 경우 젊고 건강하지 않으면 이같은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병자일기』에는 ‘축이’와 ‘산회’, 그리고 ‘축이’와 ‘오장’의 관계가 기록돼 있지 않다. 그러나 ‘축이’가 전라도 지역을 전담하고 이들이 번갈아가며 동행했다는 점에서 ‘산회’와 ‘오장’은 ‘축이’보다 젊은 나이로, ‘보조자’ 자격으로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축이’는 황해도 연안지역도 전담하였다. 남평조씨는 1640년 윤1월 23일·24일자 『병자일기』를

특이맛든우케아홉섬오다흔섬선가.⁴³⁾

라고 기록하였다. 축이는 ‘맡았던 연안의 벼 아홉 섬을 가져왔다. 그런데 한 섬은 배삐로 주었다’는 것이다. 『병자일기』의 이 기록은 收貢을 主家로 운반하는데 배를 이용하기도 했고, 당시 ‘1/9’을 운반삐로 공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공노비 ‘덕경이’는 경상도 개령 지역을 전담, 일대 수공물을 한 곳으로 취합해 대신 납공하였다. 남평조씨는 1639년 7월 28일자 『병자일기』를

41) 『병자일기』 1639년 2월 28일.

42) 『병자일기』 1640년 2월 7일.

43) 『병자일기』 1640년 윤1월 23일·24일자(이날은 일기를 묶어서 썼다).

그적그덕경이도다전의밭다던지령이경의목팔십삼덩제계농스
치열섬잇던디무목흐니스십일덩흐여왔다.44)

라고 적었다. ‘덕경이가 그저께 왔는데 전에 받았던 개령⁴⁵⁾ 이경의의 무명배 팔십삼 덩이와 제가 농사지은 댓가인 열 섬을 배로 계산한 사십일 덩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즉 덕경이는 자기 납공물 외에 개령에 함께 거주하는 납공노비 ‘이경의’의 것도 취합해 함께 納貢하였다. 따라서 ‘덕경이’는 납공노비 외에 남평조씨의 경상도 개령의 부재지주의 대리감독자인 ‘마름’(舍音)⁴⁶⁾일 가능성도 높다.

IV. 영농 전담 노비

앞서 서술한대로 『병자일기』는 대략 ‘난중피란기’, ‘서산·당진체류기’, ‘충주 체류기’, ‘서울 귀환기’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병자일기』 속의 사노비 분업화 현상은 남평조씨가 충주 이안지역에 체류할 때 ‘영농’ 대 ‘非영농’의 모습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主家の 영농에 사역하고 있는 충주 이안지역 ‘有名노비’는 정수, 정수 아내, 용수, 용수 아내, 장남이, 장남이 아내, 진만이, 이른개 남편, 재소, 안소, 황조, 수야, 충이, 쇠아내 등 모두 14명이다.

이 기간 동안 『병자일기』에 기록된 이들의 노출 빈도수를 살펴보면, 정수 30회, 용수 8회, 진만이 5회, 장남이 3회, 그리고 정수아내·용수아내·장남이아내·이른개남편·재소·안소·황조·수야·충이·쇠아내 등 10명의 노비는 각각 1회씩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남평조씨가 충주 이안지역의 영농은 최소 수십 명의 노비 중 정수, 장남이, 용수, 진만 등 4명의 有名노비가 주도했음을 알 수

44) 『병자일기』 1639년 7월 28일자.

45)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을 말한다.

46) ‘마름’은 달리 수작인(首作人) 또는 대택인(大宅人)이라고도 부른다.

있다. 그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정수’가 이안지역 영농을 진두지휘하며 ‘首奴’ 역할을 하였다. <표 4>는 『병자일기』에 등장하는 영농 행위 중 1638년 4월의 농작업 내용을 표본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전통시대 4월은 조생종과 만생종의 영농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논살기, 파종, 김매기 등이 함께 찾아오는 때로 연중 최고의 농번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정수’는 10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등 영농의 분업화를 선두에서 이끌었다. 이는 같은 有名노비인 ‘용수’의 5회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치다.

<표 4> 『병자일기』 1638년 4월의 농작업 현황

| 절기 | 입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망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담 | 흙당 | | | | | | C5 + | D6 | | | | | F3 | F4 | F5 | F6 | | | | | | | | | | | | | | F11 |
| | 벗고개 | A8 | C3 | C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돌샘골 | | | | | | | | F1 | F2 | | | | | | | | | | | F7 | | A9 | F8 | | | | | | |
| | 거리설 | | | | | | | | D7 | | | | C6 + | D8 | | | D9 | D10 | | | | | | | F9 | | | | F10 | |
| 전 | 이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A 논갈이(起耕), B 가래질, C 논살기(씨레질), D 씨뿌리기(播種), E 모기르기(養苗), F 김매기(除草), G 수확, H 시비(施肥)

‘정수’는 이 기간 동안 논갈기 1회(A8), 파종 4회(D7, D8, D9, D10), 김매기 4회(F2, F7, F8, F10), 건축용 長木 베기 1회(4월 11일) 등 총 10건의 主家 사역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정수’가 ‘首奴’로서 주가의 영농을 전담할 수 있었던 데는 소(牛)를 다루는 솜씨가 다른 노비보다

뛰어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⁴⁷⁾ 그리고 그는 畜牛 외에 자기 땅을 소유하고 또 主家の 농토를 병작하는 등 경제력을 갖춘 노비였다.

오늘은덩쉬안일을넌 ㅎ여브티기나제 ㅎ여기음이무기제되니이
도알곡석이라이틀을모도터열세홀떡여준다.⁴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만이’를 제외한 ‘정수’, ‘장남이’, ‘용수’ 등은 모두 기혼자로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세 부부는 솔거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기거는 主家 바깥에서 하면서 출퇴근을 하였을 것이다. 이는 ‘집난중’=‘출퇴근 노비’ 개념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른개 남편, 재소, 안소, 황조, 수야, 충이 등 1회만 등장한 有名노비의 상당수는 농번기인 까닭에 특별히 동원된 인력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수야, 충이는 농사일이 아닌 收貢전담 노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농사일에 1회 동원된 것은 이 시기가 두 벌과 세 벌 째 김매기 기간으로 노동력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남평조씨는 노비 사역에 있어 ‘영농’과 ‘비영농’을 비교적 철저히 구분하였다. 이는 남평조씨가 농사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영농 분업화를 선두에서 이끈 노비는 4명 정도에 불과하고, 농번기에는 ‘집중’과 ‘계집중’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였다.

47) 『병자일기』 1638년 3월 2일, 3월 15일, 4월 11일자에는 정수가 소를 직접 다루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

48) 『병자일기』 1638년 4월 28일.

V. 기타 번역화 현상

1. 사냥 전담

사냥과 관련해서는 ‘망남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남평조씨는 『병자일기』에서 ‘망남이’ 동태를 10번 기록하였다.(표 5) 이중 ‘심양으로 갈 문건들을 가지고 갔다’(1637년 12월 21일·22일)와 ‘서울로 갔다’(1638년 5월 28일)는 행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8건 모두는 사냥과 관련된 것이었다. ‘망남이’는 주로 이안지역⁴⁹⁾을 사냥 공간으로 삼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영월까지도 ‘원정 사냥’을 나가곤 하였다. 그리고 한번 사냥을 하면 많게는 3마리의 노루를 잡는 등 그 솜씨가 출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병자일기』에 기록된 집난증 ‘망남이’의 동태
(1637~1638년)

| | | | |
|-----|------------|-------------------------------|----------|
| 망남이 | 12월 21·22일 | “망남이가 심양으로 갈 문건들을 가지고 갔다” | 둘жат골→심양 |
| | 2월 25일 | “망남이가 노루 세 마리를 잡았다” | 이안 |
| | 3월 13일 | “망남이가 사냥하러 영월로 갔다” | 이안→영월 |
| | 3월 24일 | “노루 두 마리를 잡아서 찌다고 한다” | 이안 |
| | 3월 28일 | “노루 한 마리를 잡았다” ⁵⁰⁾ | 이안 |
| | 4월 8일 | “오늘 망남이가 노루 두 마리를 잡았다” | 이안 |
| | 4월 15일 | “망남이는 사냥갔다” | 이안 |
| | 4월 27일 | “망남이가 노루를 잡았다” | 이안 |
| | 5월 6일 | “망남이가 사냥갔다” | ?(장소 불명) |
| | 5월 28일 | “망남이, 충이, 기송이가 서울로 갔다” | 이안→서울 |

49) 남평조씨는 영월을 제외하고 망남이의 사냥 장소를 명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의 사냥 결과는 눈에 보듯 그리고 있어, 그 장소가 이안 지역임을 추정케 하고 있다.

50) 사냥꾼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망남이 가능성이 높음.

2. 뱃일 전담

『병자일기』는 ‘충일이’가 뱃일을 전담하는 ‘집난중’이라고 직접적인 기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월탄 나루에서 뱃일을 전담했다는 근거는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다.

남평조씨가 충주 이안지역에 처음 도착한(1638년 2월 2일) 사흘 후에 떡, 술, 안주를 가져온 종이 바로 ‘충일이’였다. 그는 그만큼 충주 이안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집난중’이었다.

남평조씨는 자신이 거주할 공간이 1638년 2월 하순에 완공되자⁵¹⁾ 서울 본가의 슬은 남한강 수계를 이용해 충주 이안의 집으로 옮겼다. 이때 나룻배를 운항한 인물은 바로 ‘충일이’였다. 그리고 ‘충일이’의 나룻배는 평소 달천 수변의 ‘월탄’이라는 곳에 정박하고 있던 것으로 사료 된다. 남평조씨는 1638년 2월 20일자 일기를

목계로 가시는비에흙찌타빅예와또말습흐읍고호판스예또약주
가져느려오셔모다잡습고하극진이곰흐시니글언감격흐은이라엿
더라쥬똥의셔서르니별흐고목계로가시고나는니안으로오다.⁵²⁾

라고 적었다. 이 나룻배는 이안서 가장 가까운 하천변의 나루를 출발해 목계까지 갔다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 왔다. 이곳은 남평조씨의 체류지인 이안과 가장 가까운 수변가인 ‘월탄⁵³⁾’이라는 곳밖에

51) 그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1638년 | 2월 22일 | 집을 헐어서 더 짓고 고쳤다. |
| | 2월 23일 | 새로 삼간 집을 세웠다. |
| | 2월 25일 | 집에 지붕을 이었다. |

52) 원문 해석: ‘목계로 가시는 배에 나도 함께 타고 오다가 배에서 또 이야기를 나눴다. 호판사가 또 배에서 약주를 가져 오셔서 모여서 먹었다. 하도 극진히 하시니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없었다. 배 위에서 서로 이별하고 다른 이들은 목계로 가시고 나는 이안으로 왔다.’

53) ‘월탄’은 임진왜란 때 신립이 익사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선조실록 25년 4월 17일자: 입(石+立)은 포위를 뚫고 달천(鎗川) 월탄(月灘)가에 이

없다. ‘월탄’은 지금은 사라진 지명이나 탄금대 남서쪽의 달천수계에 위치하였다. ‘월탄’은 수계 구분상 달천에 속하나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한강 수계와 합류하기 때문에 전통시대 충주~한양을 잇는 한반도 최고의 내륙 물길이었다.

남평조씨는 1638년 4월 하순 한양으로부터 충주 이안으로 옷감, 콩 등을 운반하였다. 이때도 땅길과 물길 중 어느 길을 이용했는지 『병자일기』에는 기록돼 있지 않으나 ‘충일이’의 나룻배가 운항되는 남한강 물길을 이용했음은 분명하다. 이는 남평조씨가 한양으로 귀경한 후 충주의 짐을 배편을 이용해 운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는 1639년 3월 24일자 일기를 ‘충주에서 배로 짐 열다섯 섬이 왔다⁵⁴⁾’라고 적었다.

<표 6> 달천 월탄의 ‘충일이’의 사역(1638년)

| | | | |
|-----|--------------------------|--|----------|
| 충일이 | 2월 5·6일 ⁵⁵⁾ | “충일리와 그 아내, 그리고 명옥이가 떡, 술, 안주를 하여 왔다” | 월탄→이안 |
| | 2월 26일 ⁵⁶⁾ | “축이가 서울서 온 남은 술과 그릇을 가지러 충일리의 배에 갔다” | 서울→월탄 |
| | 4. 21 ⁵⁷⁾ | “안동에서 충일이 편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 안동→이안 |
| | 4월 22·23일 ⁵⁸⁾ | “충일리가 서울 갔다 왔는데 마전 ⁵⁹⁾ 한 안감 두 필, 해모 ⁶⁰⁾ 한 필, 콩 다섯 말 반을 가져왔다” | 서울→월탄→이안 |

이처럼 남평조씨의 노비 중에는 나룻배의 운항을 전담하는 집안 종도 존재하였다. <표 6>은 병자일기에 기록된 집안종 ‘충일이’의 사역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충일이’는 뱃일을 하지 않으면 편지 수발도

르러 부하를 불러서는 ‘전하를 뵈올 면목이 없다’고 하고 빠져 죽었다.

54) 원문: 튕궈비김열닷섬오다.

55) 원문: 튕일이제겨집과명옥이편쥬안쥬혀왔다.

56) 원문: 튕이서울서온나문그릇가지라튕일의비에가다.

57) 원문: 안동서튕일의게로유뮈혀던혀다.

58) 원문: 튕일이서울돈오니마전호것안치두필해모호필콩단말가웃왔다.

59) 표백한 피륙을 일컫는다.

60) 피륙의 일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당하였다.

3. 땀감 전담

땀감을 준비하고 물을 갖는 노비는 ‘薪水노비’라고 해서 사노비의 가내사역 중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하였다. 때문에 이의 전담은 솔거노비 중에서 맡는 것이 보통이었다. 『병자일기』에서 이 역할을 맡은 노비는 ‘연총이’로, 사례가 다소 빈약하기는 하나 두 번 기록돼 있다. 그러나 『병자일기』 다른 곳에는 땀감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년총두바리나모버히다.⁶¹⁾

년총나모흐다.⁶²⁾

‘연총이’는 많은 때는 두 바리의 나무를 베었으나 농번기에도 농사일에 참여하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 여느 노비와 다르게 收貢 사역에도 전혀 동원되지 않는다. 때문에 ‘연총이’는 땀감을 전문으로 하는 힘 좋은 노비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남평조씨가 솔거노비의 성격을 지닌 ‘연총이’에게 이름을 호칭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앞서 서술한대로 남평조씨는 솔거노비는 ‘중’, ‘집중’, ‘안중’, ‘계집중’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총이’는 同村이지만 主家밖에 거주하는 외거노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有名노비인 ‘기송이’가 ‘이천 고을에 노루가죽 벗기는 연장을 익히러 간 것⁶³⁾도 분업화의 전단계로 볼 수 있으나 향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1) 『병자일기』 1638년 4월 13일.

62) 『병자일기』 1638년 5월 19일.

63) 『병자일기』 1638년 4월 10일: 기송이드러가다니천고을장피연당니리라가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남이공 부인 남평조씨가 쓴 『병자일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병자일기』는 피란일기임에도 불구하고 17세기 노비에 대한 풍성한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다. 노비들의 상당수가 이름을 지닌 ‘有名노비’로 기록돼 있어, 개개 노비의 동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솔거노와 외거노를 구분하는 이론은 아직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본글에서는 노비주와同居를 하면 솔거노비, 동거를 하지 않으면 외거노비, 외거를 하면서 納貢만 하는 노비를 남공노비로 분류하였다.

이 경우 有名노비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는 적지 않은 난제가 되고 있다. 남평조씨는 納貢노비에 대해서는 이름을 생략한 채 ‘어디서 貢을 받아왔다’ 정도로 약술하였다. 따라서 有名노비에는 남공노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有名노비는 솔거노와 외거노일 터인데, 이 또한 구분이 쉽지 않으나 실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다. 남평조씨는 家內 순수 사역이나 營農에 피동적으로 동원되는 솔거노비에 대해서는 ‘중’, ‘집중’, ‘계집중’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병자일기』에는 총 76명의 有名노비가 등장한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를 노비주와 主家에서同居하는 솔거노비로 볼 수 없다. 상당수는 같은 마을(同村)이나 近村에 기거하며 출퇴근을 했을 것이다. 남평조씨는 이렇듯 솔거노적 성격을 지니면서 同·近村에 기거하는 노비를 ‘집난중’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솔거노비의 성격을 지니면서 主家の 집밖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외거노비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솔거노와 외거노의 교집합 부분에 해당한다. 이 영역에서 사노비의 분역화 현상이 일어났다. 『병자일기』 속의 사노비 분역화 현상은 收貢, 營農, 기타 전담 노비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76명의 有名노비 중 收貢을 전담한 노비는 12명으로 15.7%를 차지

하고 있다. 이들은 다시 인물과 지역별 전담으로 그 성격의 구분할 수 있다. 인물면에서 ‘축이’는 총 8회로, 收貢 사역에 가장 많이 동원됐다. 收貢을 하려면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고, 해당지역 지리에도 익숙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축이’는 76명의 有名노비 중 이 같은 조건을 잘 갖췄던 것으로 사료 된다.

월별로 본 收貢 시기는 음력 2월이 전체 27건의 노출건수 중 9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1월과 4월로 각 4건(14.8%)이었다. 이 시기는 혹한이 물러가기 시작하거나 가을·봄걷이 등이 막 끝난 시기로 당연히 收貢의 적기가 됐을 것이다. 收貢에 소요되는 기간은 主家에서 먼 곳일수록 길어져, 전라도 지역은 3개월이 소요됐다. 이밖에 有名노비의 도보 속력은 충주-서울이 3~3.5일 걸릴 정도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공을 전담하는 노비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12명의 收貢전담 노비 중 ‘축이’는 4번에 걸쳐 전라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收貢하였다. 이밖에 ‘덕경이’라는 노비는 경상도 개령 지역의 貢物을 수합해 주가인 남평조씨가 대신 납공하였다. 따라서 ‘덕경이’는 경상도 개령지역의 부재지주의 대리감독자인 ‘마름’(舍音)일 가능성이 높다.

남평조씨는 충주 이안지역에 적지 않은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고, 때문에 영농을 전담하는 有名노비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收貢과 달리 영농을 전담하는 노비는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영농전담의 首奴 역할은 畜牛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고 병작 외에 본인 토지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정수’가 맡았다. 그는 대부분의 영농 사역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 김매기 등 농번기가 찾아오면 ‘종들의 아내’ 외에도 ‘집종’과 ‘계집종’을 대거 동원하였다.

그러나 ‘정수’를 비롯한 남평조씨의 영농전담 노비들은 收貢에는 전혀 나서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영농 솜씨가 主家로부터 인정받았고, 그 결과 ‘營農’과 ‘非營農’ 사이에 분역화가 성립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사노비의 분역화가 관찰되는 영역으로는 사냥, 뱃사공, 땀감

전담 등이 있다. 有名노비 ‘망남이’는 오로지 사냥에 전념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강원도 영월까지 ‘원정 사냥’을 나갔다. 그는 사냥 기술에 탁월해 하루에 노루 3마리를 잡기도 하였다.

‘충일이’는 달천 월탄에서 뱃사공 일에 전념하는 노비였다. 그는 달천-남한강을 잇는 수계를 이용해 한양의 짐을 충주로 옮기기도 하고, 반대로 충주의 짐을 한양으로 싣고 가기도 하였다. 또 남평조씨가 하류 목계를 방만할 때는 ‘충일이’의 나룻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연충이’는 땀감만을 전문으로 하는 힘 좋은 노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남평조씨는 納貢, 膳物, 營農 등으로 획득된 재화를 바탕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였다. 이중 膳物은 餘貢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납공과 선물이 남평조씨가 경제운영의 두 축이 됐다. 사노비 분업화도 收貢과 營農으로 크게 대별된 것은 이 이유였다.

남평조씨는 당시의 분역화가 현대경제와 같은 개념이 아닐지라도, 소유 노비들의 신체적 수준, 지적 정도,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역별로 使役을 시켰다. 그리고 그 使役은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남평조씨의 가정경제를 떠받드는 기둥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정확한 기록이 없어 본글에서는 본격 거론하지 않았지만, 主家の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同村이나 近村에 거주하는 ‘집난중’(출퇴근 노비)이 다수 관찰되는 것은 노비사적으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논문접수: 2013. 11. 5, 심사시작: 2013. 11. 15, 심사완료: 2013. 11. 29]

주제어 : 병자일기, 남평조씨, 유명노비, 사역, 분역화, 수공, 영농.

【참고문헌】

- 남평 조씨, 『병자일기』, 『향토연구』 6집, 충남향토연구회, 1989
- 역자 전형대·박경신, 1991, 예전사
- 『세종실록』
- 『세조실록』
- 『성종실록』
- 『중종실록』
- 『경국대전』
- 국사편찬위원회, 2013, 『한국사30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탐구당
- 국사편찬위원회, 2013, 『한국사31 조선중기의 사회와 문화』, 탐구당
- 『고등학교 국사』(국정교과서, 7차 교육과정)
- 한글학회, 1970, 『한국지명총람3(충북편)』
-
- 김건태, 2008, 「조선후기 사노비 파악방식」, 『역사학보』 제 181집
- 김건태, 2011, 「慶尙道 安東 金溪里 義城金氏家 사례」, 『대동문화연구』 제 75집
- 김건태, 2008, 「조선후기 사노비 파악방식」, 『역사학보』 제 181집
- 김용만, 2002, 「조선중기 사노비의 거주형태」, 『국사관논총』 제65집
- 김용만, 1990, 『조선중기 사노비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석, 1960, 『朝鮮封建時代農民의 階級構成』, 학습원동양문화연구소
- 문숙자, 2008, 「16-17세기 양반가 노비가족의 존재 형태」, 『고문서연구』 제 32호
- 문희순, 2010, 「남평조씨 3년 9개월의 가정과 인간경영」, 한국언어문학회 제 75집
- 박경신, 1990, 「『병자일기』 연구」, 『국어국문학』 104, 국어국문학회
- 박근필, 2004, 「『병자일기』시기 남이옹가의 경제생활」, 『농업사연구』 제3권 제1호
- 박근필, 2002, 「『병자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기후와 농업」, 경북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변순희, 1999,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훈, 1987,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 9
- 장기문, 1997, 「노비 명칭에 대한 고찰(1)」, 『우리어문연구』 11권
- 장기문, 1998, 「노비 명칭에 대한 고찰(2)」, 『한국어내용론』 제 5호
- 정우봉, 2012, 「남평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권
- 지승중, 1995, 「조선전기의 남공노비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13집 제 1호
- 지승중, 1986, 「조선전기의 주노관계와 사노비의 성격」, 『사회와 역사』 제 3권
- 차재근, 2009, 「대구부 동상면 호적의 고유어계 노비명에 관한 계량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 66집
- 함정옥, 2007, 『남평 조씨 <병자일기>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ABSTRACT>

Private Slaves during the Early 17th Century Found in 『ByeongJa Journal』

Cho, Hyoug-youn

『ByeongJa Journal』 was a journal that had been kept during a war and yet, it provides us with such abundant historical information on slaves in the 17th century. Most of the slaves at that time were registered as a ‘slave with a name’ and because of that, tracking down movements of those individual slaves is now considered possible. Even though there are no ways to clearly learn if these slaves with names were owner-owned slaves or other-owned slaves, if we look at writing habits of Nampyeong Jo-si, the slaves with names are believed to be ‘jibnanjong’, which is a slave living in the same village or town with the owner. The separation of works of slaves at that time is mostly observed from these ‘slaves with names.’

Out of 76 slaves with names, only 12 of them were in charge of handiwork which had covered 15.7% of the whole. Among those 12 slaves with names, this slave named ‘Chuk-yee’ was assigned to handiwork most frequently than the other slaves. In addition, the slaves in charge of handiwork had their own areas of responsibility, and this ‘Chuk-yee’ dealt with Jeolla-do mostly while another slave, ‘Deokkyeong-yee’, did his job as an acting director in Gaeryeong Area in Gyeongsangnam-do.

There were only a few slaves who would do farming only exclusively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handiwork. 'Jeong-soo' who was very much good at handling domestics cows and oxen and who also owned a land by himself was asked to be a leader of the slaves in charge of farming. While mostly working in Ian Great Area in Chungju, 'Jeong-soo' was clever enough to gather not only 'wives of slaves' but also 'other slaves at home' including 'woman slaves' to participate in weeding during the busy seasons. However, those slaves in charge of farming were never asked to do handiwork so in that regard, it is determined that, at that time, there was already the separation of works between the 'farming' slaves and the 'non-farming' slaves. Other than those in charge of the handiwork or the farming, other slaves worked in separation in fields of hunting, sailing and firewood preparing.

Nampyeong Jo-si proved that even though the separation of works in those times had not been good enough to come near to those definitions of the contemporary economy today, slaves were certainly given different responsibilities depending on their physical conditions, intellectual levels and residential areas. With the help of the separation of works at that time, the slaves who would do the main responsibilitie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amily economy of the Nampyeong Jos.

Key words : ByeongJa Journal, Nampyeong Jo-si, Slave with name, Responsibility, Separation of works, Handiwork, Farming